

III. 밤나무栽培에 따르는 病虫害問題

林業試驗場 林業研究官

高濟鎬

밤나무栽培가 集約化하여 人工造林地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가지 病蟲害가 發生하여 그 防除對策이 時急히 要求되고 있다.

밤나무는 有實樹로서 収益性이 높아 內務部의 治山 10個年計劃 年間에 30萬ha의 栗林造成이 計劃推進되고 있다.

最近 우리나라 밤나무에 被害를 주는 것으로 記錄된 것은 害蟲이 5目45科133種이며 病害가 13餘種이다.

害蟲으로서 被害가 큰것들은 밤나무혹별, 어스랭이나방, 오리나무좀, 밤나방과 밤바구미 등이며 病害로 그 被害가 問題되고 있는 것 들은 출기마름병, 흰가루병, 근두암종병 등이다.

일본에서 1960年代부터 耐虫性品種인 銀寄, 筑波等에 蟲害를 形成하는 새로운 種類의 밤나무혹별이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被害가 確認되지 않고 있다.

最近一般植栽者들이 栗林에서 耐虫性品種으로 알고 싶은 밤나무에 밤나무혹별의 被害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耐虫性이 보장되지 않은 品種을 잘못 購入植栽한 경우基因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심어서 가꾼 밤나무의 收穫이 시작되면서 種實害蟲인 밤나방, 복숭아명나방, 밤바구미 등의 피해 구제가 時急히 要求되고 있다.

光陵試驗林 原種圃에서 밤의 種實害蟲의 被害는 1972年에 25.9%이던 것이 1973年에는 76.8%의 極甚한 被害를 받았다. 比較的 藥劑撒布 等 管理가 잘 된 試驗林에서 被害가 그리하니 一般栽培地에서의 被害는 더욱 問題視된다.

밤나무林의 造成當初의 被害로는 오리나무좀이 樹幹을 加害하여 致命的인 被害를 주는 경우가 많다. 特히 凍害를 받아 樹勢가 衰弱하여진 경우에 本害蟲의 被害가 뒤따르니 適地에 심고 徹底한 管理를 하여야 하겠다.

栽培種은 거이 추위에 弱하며 凍害에 뒤따른 출기마름병(胴枯病)의 被害가 問題되고 있음으로 耐寒性品種의 育成이 무엇보다 要求된다.

밤나무의 育苗過程에서 接木部位가 土中에 묻치면 土壤中의 根頭癌病菌의 侵害를 받아 接木部位에 밤알만한 혹이 생기며 生長이 매우 저해되어 枯死하는 경우가 많다.

밤나무혹별에 對한 耐虫性品種의 增殖에는 接木에 依한 育苗가 不可避하며 短時日에 많은 苗木을 生產하고자 幼台接木方法을 適用하는데 問題點이 많은 것 같다.